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위원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위원장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사순은 금욕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의 가난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부유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물어보도록 합시다.



진정한 가난은
 아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러한 차원의 참회 없이는
 그 어떤 금욕도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희생도 따르지 않고
 아픔이 없는 자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2014 사순시기 담화문 중에서

[제 1독서] 창세 2,7-9:3,1-7
 [화답송] 시편 51(50),3-4,5-6,12-13,14와17(◎3참조)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각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 2독서] 로마 5,12-19 또는 5,12,17-19
 [복음 환호송]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마태 4,1-11

성가	8시 미사	입당 118	봉헌 221 513	성체 174 178	파견 123
	11시 미사	입당 118	봉헌 221 513	성체 174 178	파견 123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사순 제1주일(3월 9일)		사순 제2주일(3월 16일)		사순 제3주일(3월 23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조레지나(선덕)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글라라(순희)	황테레사(혜정)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구미카엘(창희)	김안드레아(찬곤)	최다니엘(대연)	이바로로(명국)	허라우렌시오(순구)
제 2 독서	최분도(수영)	이베로니카(경란)	김글라라(순희)	서테레사(춘애)	정스텔라(애리)	김테레사(승희)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어둠 앞에서

어느 자리에서 동료 신부가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김 신부 꿈은 뭔가?” 내내 그 질문이 마음에 남아 저한테도 질문해 봅니다.

“내 꿈은 뭐였지?” 희미하지만 돌이켜 보니 처음에는 제법 의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점차 <두메 꽃> 같은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외팔고 높은 산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 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 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 숨어서 피고 싶어라.” (최민순 신부)

그래서 틈틈이 일도 하고, 산골로 귀농한 동생네 가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게 외딴 세상에 대한 동경이자, 경쟁하고 더 가져야 살아남는 세상에 대한 막연한 반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로 쉰 살이고, 사제생활도 스무 해째입니다. 이젠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남 탓만 할 수 없는 나입니다.

현대의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극도로 불의한 사회에서도 잘 살고 일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심이라는 울타리를 친 자신들의 삶의 공간에만 관심을 두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일로부터는 물러나 있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그리스도교 신앙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런 지적을 들으니 나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너 나름대로(!) 사느라고 깡깡댄 건 알겠다. 하지만 정작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인생이었어.”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라는 확인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굳이 악마와 어둔 세상을 향해 나섭니다. 게다가 40여 일이나 굶은 혼자의 몸입니다. 달걀로 바위 치기입니다. 이때 빵(돈)으로 맞서려 하고, 뛰어내리는 내 재주로, 숫

자에 기대지 않으십니다. 그 방식은 악마의 제안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맞설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바위가 사라집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 핏줄이니까 말입니다 (1 독서). 하지만 대개 머리로만 압니다.

오늘 복음은 아버지와 하나임을 깨달을수록(기도) 어둠에 저항하는 사명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또 어둠에 저항할 사명을 깨달을수록 하느님의 빛과 하나 되어야 함을 알려 주십니다. 어둠의 세상에 절절하게 그분의 빛으로 다시 서야 하는 사순절입니다.

정연성 베드로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참인간이 되신 하느님

인간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은 인류 구원사업을 앞두고 광야로 가서 사십 일 동안 힘든 준비를 하십니다. 위에서 끌어올리는 일방적인 구원방법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함께 올라가는 구원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한 광야의 준비는 인간의 삶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인간 적응훈련' 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훈련과정은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테니스 시합에서 지고 나면, 앉아 쉬지 않고 서서 쉬는 친구가 있습니다. 몸을 벌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몸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영혼을 다스리려면 우선 몸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인간 몸의 욕구 중에 가장 큰 것 세 가지는 식욕(食慾)과 성욕(性慾)과 수면욕구(睡眠欲求)입니다. 모두 필요한 것들이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고,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잠만 잔다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과정은 교만을 없애는 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역시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하느님마저도 자신에게 시종드는 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되면 자기 탓, 못되면 하느님 탓, 때로는 하느님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내가 존재하고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모두 하느님의 섭리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한계를 인정하며, 하느님의 정당한 권위에 머리 숙여 복종하십니다.

세 번째는 헛된 우상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훈련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명예와 권력과 금력에 의지하여 쉽게 일하려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요령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느님 뜻을 따르는 정도(正道)를 택하십니다.

하느님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돈에 의지하여 일하면 일은 쉽지만 사람이 다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일하면 일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 적응훈련을 통해 인간이 쉽게 굴복하는 유혹들을 물리치십니다. 원조 아담이 유혹에 빠져 인류가 길을 잃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는 참인간이 되심으로써 몸소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이 시달리는 유혹도 깊이 이해하고, 인간을 몸과 마음 전체로 사랑하며,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도 유혹을 물리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으셨으며 우리에게도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유혹들은 유혹같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집요할 수가 없으며,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눈도 뜨고, 마음의 눈도 뜨고, 겸손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유혹의 천적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고찬근 신부
명동대성당 주임



우리 모두 나무처럼 교요히 서서
많은 말을 줄이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글_이해인 수녀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외할머니께 기도의 빛을 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출생 후 사흘 만에 아기를 데려와서 세례받기로 돼 있었는데, 저는 그만 나흘 만에 성당에 업혀 갔습니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였던 여(呂東宣, Louis Tourneau) 신부님은 외할머니께 하루 늦은데 책임을 물어 대재(大齋, 단식제)를 두 번 지킬 것을 보속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방학 때 외가에 가곤 했는데, 할머니는 언제나 새벽 네 시면 일어나 기도하시고, 미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저희를 깨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길, 들길을 15분가량 걸어서 성당에 가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순시기가 시작되고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지금도 금식재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사순시기 매 금요일에 어른들은 대재를 지켜야 했고, 소재(小齋, 금육재)는 지금도 그렇지만 열네살이 되면 아이들도 지켜야 했습니다.

8년 전 3월에 세상을 떠나신 저희 어머니는 열심한 외할머니의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셔서 그런지, 생전에 설이나 추석 명절 때 금육재 관면이 내렸다고 말씀드려도 금요일이면 고기를 들지 않으셔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요즘에는 교우들이 너무 자유로워!”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활짝 열린 이 시대에 ‘재’ 를 지키는 규정에도 우리 교우들이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피우기 시작한 담배를 20년가량 피우다가 끊은 후에는 연습으로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 때는 사순시기가 되면 술 담배 끊기 결심을 곧잘 지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도중에 결심이 깨어지는 일이 잦아서 어려웠습니다. 한번은 어느 지역 교회를 단체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이 마침 성토요일이었고, 그곳 교회 어르신께서 식사 중에 반주로 포도주를 좌중에 권하면서 ‘사순금주’ 에서 해방된 날이라고 기뻐하시던 광경이 인상적입니다.

주님의 수고수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의 노력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유혹’ 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말씀드립니다. 죄는 ‘유혹에 동의한 결과’ 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결심을 수도 없이

하지만 넘어질 때가 무척 많습니다.

요즘은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아이들이나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면서도 어쩌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결과로 상대방의 아픈 곳을 꼬집거나 엉뚱한 말을 해서입니다. 다른 일로 넘어지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그대로 사위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용기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당한다’ 는 것과 ‘동의한다’ 는 것도 분별해야 한다. 분별력을 이용하면, 우리는 유혹의 거짓된 가면을 벗길 수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847항)는 가르침에 저는 용기를 얻곤 합니다.

최홍준 파비아노
방송작가
전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 목자의 소리

사실[하느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인 아브라함의 신앙은
언제나 기억이라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과거의 사건들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기억으로서,
미래를 열어줄 수 있고 그가 걸을 길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억 (memoriae
futuri)’ 으로서 신앙이 얼마나 희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를 보게 됩니다.

둘째계명 - 너는 너의 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탈출 #20:7)

1. 둘째 계명의 근본정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셨습니다(탈출#3:14, 17과 참조). 이름을 알려 주신 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뜻인데, 십계명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모순된 명령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심으로써 당신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느님께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윗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친구가 되어 주었다면, 아랫사람은 그 마음에 감동해서 윗사람을 더욱 정성껏 대해야 하는데, 윗사람의 낮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낮추심과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함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계명의 근본정신은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2. 둘째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

신성 모독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부인합니다.

- 신성 모독은 둘째 계명을 직접 거스르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로나 말로써 하느님을 증오하거나 비난하거나 도발하고, 하느님을 나쁘게 말하며, 그분께 대하여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등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45항). -

거짓 맹세

하느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하느님을 들먹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상설교에서 둘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 #5:33-34:37)

3. 둘째 계명의 올바른 실천

찬미

신자들은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느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찬미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에 처해도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 선포

또한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증언할 필요도 있습니다.

- 신앙인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여 하느님의 이름을 증언해야 한다. 설교와 교리교육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흥송과 경의가 흥뻑 깃들여 있어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45항). -

4. 사람의 이름도 존중받아야 한다

하느님께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사람들의 이름들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는 익명의 군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름을 알아 주시는 특별하고 고귀한 사람입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각 사람을 제 이름으로 부르신다. 모든 사람의 이름은 거룩하다. 이름은 그 사람의 표상이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존엄성의 표시로 존중되어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58항) -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3월 9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돈보스코	박데레사
	연 오안나(봉순)	이크리스티나(인숙)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박준기	이시몬/울리엠타
	연 구요셉(경서)	구미카엘
	연 돌아가신형제/친척들	구미카엘
	생 유케빈	유데레사
	생 박스테파노/실비아	박데레사
	생 이요셉/세레나	박데레사
	생 양마르코/수산나	박데레사
	생 유데레사(춘성)	사랑하올어머니Pr.
	생 유데레사(춘성)	김제랄드
	생 유데레사(춘성)	민제노베파
	생 유데레사(춘성)	조마리아
	생 유데레사(춘성)	정베드로
	생 이요셉(병열)	김엘리사벳
3월 11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전데레사(정희)	가족
	연 이옥만	김엘리사벳
	생 이데이빗(지헌)	김아네스(순이)
3월 12일 수	연 박마리아(복임) 기일	영파트리샤
3월 13일 목	연 한다윗(흥택)	한수산나
	생 김수산나(현숙) 생일	김엘리사벳
	생 지글라라(소연) 생일	영파트리샤
3월 14일 금	생 Wu 아나스타시아 생일	이카타리나
	생 유데레사(춘성)	정베드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3	219	45	347
헌 금	\$570	\$1,348	\$100	\$2,018

< 교무금 > \$3,185

정기환(3-4) 김상실(3-4) 강수영(1) 이재우(2-3)
 채용분(3) 남금지(3) 최옥경(1-3) 김수연(2-3)
 조상희(3) 소명환(3-4) 이병열(3) 채성일(3-4)
 이명란(3) 이순자(1-2) 박일신(2-3) 김관수(1-3)
 정진희(3) 황정희(3) 조우송(4) 전문자(3)
 김옥녀(3) 허동원(2) 정화봉(11-12/13) 육승주(3)

< 성소후원금 > \$110

채용분(3) 소명환(3-4) 정진희(3) 이명란(3)
 박일신(2-3)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김민규 \$100 정화봉 \$300

< 부활초/꽃봉헌 >

김병수 \$100

~~~~ 오늘 간식은 김애자 아가다/정소민 안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양 -

◆ 2차 헌금 안내

3월 9일(오늘) : Catholic Relief Services

◆ 친교실과 성당입구에서 Rice Bowl을 가져가십시오.

◆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십자가의 길 주송자 신청

주일 아침/교중 미사 전 십자가의 길 주송하실 분들  
신청 받습니다.  
신청 : 전례부장/차장 또는 사무실

◆ 부활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부활봉성체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부활초/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구역장회의 : 3월 9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평협회의 : 3월 9일(오늘) 교중미사 후
- \* 서예교실 : 3월 9일(오늘) 교중미사 후 203호실
- \* 독서클럽 : 3월 9일(오늘) 교중미사 후 103호실
- \* 청소년기금 마련 골프대회 준비 모임 : 오늘 미사 후 204호실
- \* 뜨개질사랑회 : 3월 16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

3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1-2장

|      |             |          |
|------|-------------|----------|
| 9 구역 | 3월29일(토) 6시 | 구태영 요셉 덕 |
|------|-------------|----------|

◆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3월 23일 중식 후 성당  
대상 : 레지오 전단원

◆ 주일학교 교감선생님을 모십니다.

2014년 가을학기부터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연락 : sjbaek@gmail.com 백승진 미카엘

◆ 영상으로 하는 사순피정

일시 : 3월 16일(주일) 오후 1시 - 5시 30분  
참가비 : 무료(전신자 점심 제공)  
\* 피정 후 차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3월 9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가톨릭 성서모임 창세기 연수

일시 : 5월 31일(토) ~ 6월 1일(일)  
대상 : 창세기 과정을 마친 분들  
\* 비용과 장소 : 추후 공지  
신청 : 백승진 미카엘 sjbaek@gmail.com

◆ 크레딧유니온 프로모션 안내

\$50,000 이상의 CD를 181~365일간 맡기실 경우  
이자가 신규회원 : 0.95% -> 1.10%  
기존회원 : 0.95% -> 1% 로 인상되었습니다.

◆ Hair Cut 봉사자께서 Donation 받으신 \$100을  
트라이밸리 성당 성전기금에 봉헌하셨습니다.

◆ 연도 안내

장희숙 루시아 자매님 아버님이신 민경수 토마스  
형제님께서 한국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에서 연도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